

# 일본 초고령사회의 남성 개호학습활동과 젠더인식변용

오민석(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퇴직한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일본의 개호학습활동을 통해 남성의 젠더의식변화와 그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지역사회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고령자 개호문제에 대한 교육적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결과, 일본의 여성사회교육기관은 젠더에 대한 비판적 시각 표출을 통해 지역사회가 당면한 여성 편향적 개호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 개호학습활동을 실천해왔다. 그 실천사례인 “에세나오타”에서는 참여체험형 학습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개호의 젠더역할론 인식부재문제를 개인의 비판적 자아성찰을 통해 해결코자 하였다. 즉, 개인의 의식을 주체형성과정과 관련지어 논한 본고의 개호활동은 “의식의 내적변혁”을 지향하는 학습을 매개로 남성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학습은 개인의 인식변용에 주목한 자아성찰, 개인적·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모두 존재하는 자기주도형 학습이자, 자기결정적 학습이었다. 결국, 개호학습을 통한 남성의 의식전환은 개인의 자율적·주체적 의지에 의해 촉발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 등에 대한 철저한 자아성찰을 매개로 한 변용적 학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획득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전제조건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적 학습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요구되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의사소통적 강좌학습에 대한 실천노력과 지역커뮤니티 교육력의 함양, 그리고 참여체험형 학습활동 추진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남녀공동참여사회, 인식변용학습, 개호학습활동, 성역할분업의식, 의사소통적 학습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사회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라는 현대사회의 조류에 끊임없는 변혁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에 이미 고령화율이

---

\* 주저자: 오민석(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tokyoangel@hotmail.com)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50년이 되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뿐만 아니라, 개호·의료·복지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비 급증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체계가 촉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될 지역사회 간의 교육적 상호작용은 그 방향성을 상실한 듯이 보인다.

한편, 바야흐로 21세기의 일본사회는 “지역복지의 계획적 추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제 1990년대 이전부터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복지가 주민 주체의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실행되어 왔다. 장애를 가진 가족·본인, 육아 중인 부모, 치매에 걸린 고령자와 그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은 불충분하였으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육원과 지역밀착형의 고령자 탁로소(宅老所)의 운영이 그 실례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민의 애착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으로 발현된 현상으로서 그들과의 단절된 생활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 공생을 배우는 등 국가가 할 수 없는 교육적 역할에 대해 주민 상호 간의 유대관계형성을 통한 실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불어 닥친 버블경제붕괴 후 저성장과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기업별 노동조합”, “연공서열별 임금구조”, “중신고용”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관행 변용에 따른 남성중심의 가족 부양과 유지 곤란, 여성 취업 증가는 퇴직한 중고령 남성의 젠더적 참여활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경기정체와 함께 부각된 남성의 젠더적 역할론은 국가의 남녀에 대한 정책론의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 지역사회 내 남성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 효용성에 대해 다시 한번 근본부터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이 젠더평등이나 지역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참여의 토대를 조성하는 것은 남성 개호(介護)<sup>1)</sup>활동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남성의 지역 활동 촉진을 도모한 지역여성기관의 교육적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남성의 지역 활동 활성화 요소를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퇴직 후에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성역할 분담에 관한 의식·지식향상, 나아가 개인·주민의 상호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립형 사회활동의 동인을 구조화하고자 한다. 남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촉발시키는 동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개호학습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는 접근방법으

1) 개호(介護)란 영어로 케어(care: 간호)로 표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시중, 감독, 보호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중증의 심신장애자 혹은 병자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모든 곤란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특히 고령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中村優一, 1982: 89).

로서 젠더역할론에 대한 교육과정과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보다 앞선 일본사회의 개호학습에 대한 사회참여활동, 즉 지역사회 내 남성 참여론에 대한 국가의 정책마련과 지역사회교육의 토대로 중시해온 남성의 역할론이 젠더평등이라는 특질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개호학습은 신체적으로 약체화가 진행 중인 고령자 케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고령자의 생활행동과 생활영역의 유지·확대, 그리고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생명존중과 인권적 측면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복지적 학습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소위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고령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해 온 것은 또 다른 이름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며느리, 아내, 딸)이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개호지원이 남성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 津止正敏(2013)에 의하면 “창조성 풍부한 삶”이란, 개호를 고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개호에서 배제되는 것이 공존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모델, 새로운 삶의 방식의 견인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실천자로서 남성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또한, Fraser(1997)는 개호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민모델 주장을 통해 여성에게 의존해왔던 개호역할을 모든 사람이 담당하는 개호의 사회화를 제창함으로써, 젠더화된 유상노동과 무상노동이라는 이분법적 탈구축을 지향하는 남성의 인식변혁을 초점화하였다(齋藤眞緒, 2009: 172). 결국, 개호는 여성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과제이며 사회전체가 지지하는 지원체제 속에서 성립되어야 함을 지적한 대목으로 남성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개호역할에 대한 젠더인식의 보편성 유지와 함께 젠더평등정책의 구체화를 지향한 남녀공동참여사회<sup>2)</sup>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개호역할에 대한 젠더규범 극복문제는 의료 복지적 측면의 해석이 다수를 차지해 왔으나 개호문제에 대한 남성의 젠더인식이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용되는지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의 개호문제를 사회참여활동이라는 인적 관계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관념으로 변질되는 현실에 자각하여 개인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추세에

2) 남녀공동참여정책은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The Basic Law for a Gender-equal Society)」(1999, 법률 제78호)에 입각하여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모든 분야에 참가할 기회가 확보되고 남녀가 균등하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형성」(社會教育推進全國協議會, 2011: 109)의 실현을 그 골자로 인권존중의 이념에 입각한 남녀공동활동의 원리와 지역사회의 형성을 중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남녀가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을 나누며, 성별에 관계없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실현은 긴요한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항거하고 연대의 꿈을 좇는 협동성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Bauman, 2000)를 통해 남성의 지역사회참여라는 시민적 태도와 방법 모색을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데 그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남성의 지역사회 내 인적 관계성 및 가정 내 융합의 약체화 현상을 동반하는 개호활동의 개인화 현상이 만연하는 현대사회에서 보편적 개호 제공자인 남성에게 지역사회의 교육력이 남성의 젠더인식변용에 미친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교육의 관점에서 일본 남성 개호학습의 실제와 그 교육적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고령자 개호문제에 대한 금후 교육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동경도(東京都) 오타구(大田區) 소재의 남녀평등추진센터가 사회참여활동의 일환으로 실천하고 있는 남성 개호학습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동 센터가 지향해온 지역사회교육의 내실의 일단을 규명하고자 한다.

“남녀공동참여사회”라는 개념은 뿌리 깊은 남녀성역할분담의식에 대한 가변성의 인식과 그 비본질성을 이해코자 1999년 제정된 국가적 조치로서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개인 존중이라는 이념의 결합을 통해 젠더의식의 수정을 지향했다는 점에 그 특질을 찾을 수 있다. 1992년 문부과학성 평생학습심의회는 「향후 사회의 동향에 대응한 생애학습의 진흥방책에 대해」에서 평생학습의 실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지역사회 내 “남녀공동참여형사회의 형성”을 명기함으로써 종래의 여성교육을 넘어 평생학습으로의 정책적 조건정비를 강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평등이념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녀의 고정적 성역할분담의식을 개선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정비와 함께,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개호문제 등의 성차별문제를 평생학습의 중요과제로 재인식할 것을 강구하였다. 여기에서 평등이란, “동화”, “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분화”, “차이화”하는 것도 아니며,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부자유 혹은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계를 만들지 않는, 범주화하지 않는 “무한의 차이가 혼재하는 존재형태를 보장하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若桑みどり, 2006: 270). 이처럼 일본의 남녀공동참여사회정책은 그 원동력을 지역사회교육의 실천에서 찾고자 했던 점,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자기역량강화(이하,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 2. 문제의식 및 선행연구의 고찰

상술한 연구목적은 제기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있다. 일본의 개호는 1860년대 후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고등여학교의 가정학 교과서에 “가정 내 간호”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1940년대 여성 보건부(保健婦)의

생활개선적 사회사업활동을 시작으로 점차 사회화되어 갔다. 그럼, 이러한 개호변천과정 속에서 국가는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 대응하고자 하였는가. 특히, 남녀공동참여사회의 실현에 앞장서온 일본 정부는 어떠한 지역사회교육을 통해 남녀의 젠더불평등의식변화를 창출하고자 하였는가. 또한, 남녀의 임파워먼트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참여활동을 매개로 한 인적관계형성을 통해 형성된 것인가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즉, 여성사회교육기관을 매개로 한 여성의 주체적 개호학습활동을 통해 젠더평등에 대한 의식변화와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동 기관이 추구해온 지역사회교육이 극명해지지 않으면 남성의 개호에 대한 성역할분업의식의 내실도 규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본의 지역여성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된 남성 개호학습활동에 대해 주목하기 전에 한국의 고령자 개호교육정책의 특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개호와 젠더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고령자 개호교육 정책은 의료복지 서비스에 치우친 나머지, ①고령사회에 대응 가능한 남녀의 성역할 분업에 대한 의식 부재, ②고령자 개호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적 관점에서의 연구 부재, ③남녀공생의 관점에서 본 고령자 개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3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고, 지역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남성들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남성 개호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는 과제해결에 대하여 소극적 자세로 대처하며, 전시적 행정으로 인해 정책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유지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자의 의료복지실천에 중점을 둔 국가정책사업은 퇴직 후 주민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녀 공생적 관점에서 개호활동에 대한 학습기회의 부여와 참여 촉진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다. 예컨대, 정부는 「노인복지법」(2013년, 법률 제5359호)에 기초한 고령자의 질환 예방 및 발견에 따른 적절한 치료, 그리고 노인취업알선기관·노인지역봉사기관의 설치·운영을 통해 고령자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해왔다. 이는 고령자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면서 생활의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둔 정책의 실례로서 ①인적관계형성을 매개로 한 고령자의 사회참여활동, ②“남녀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을 통해 임파워먼트를 지향하는 공생의식의 함양이 중시되는 남녀공동참여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료 복지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고령자 개인의 사회참여활동·젠더불평등의식의 전환이라는 견지에서 개호활동에 내포되어 있는 남성의 개호의식 변화와 임파워먼트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과 관련한 한국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호시스템

의 복지화, 개호와 의료의 연계화, 개호교육, 개호복지서비스 등 의료복지와 관련한 종래의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지만, 남녀공동참여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의 지역사회활동과 젠더 의식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①개호 시스템의 복지화에 관해서는 박경택 외의 「지능형 홈케어 시스템 기술」, 강은영·임용순의 「유비쿼터스 환경에 모바일을 이용한 원격 헬스케어」이 있고, 또한, ②개호와 의료의 연계화에 관해서는 함철호의 「한국의 노인케어와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김태숙·함철호·문창진의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실태와 연계의 틀로서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태도」 등이 있다. 그리고 ③개호교육에 관해서는 한아름의 「성공적 노후 준비를 위한 노인 인문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순희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등이 있다.

그러나 남성 개호학습의 실태적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볼 경우, 고령자 의료복지를 관점으로 한 연구에 머물러 있고, 지역사회 내 남녀평등추진센터의 역할과 그 교육적 의의라는 연구관점은 중시되지 않았다. 선행연구 중에서도 한아름(2014)의 연구는 6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프로그램인 “인문학 아카데미”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종래 고령자복지의 관점에서 평생교육학적 견지로의 이행을 통해 고령자 케어교육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김태숙(2005)의 논문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고령자 케어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의 연계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복지체제의 학제 간 협동과 상호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개호활동에 대한 남녀공동참여사회에 대한 내용분석 및 그 속에 내포된 사회 의식적 함의에 대한 논의, 나아가 젠더인식변화에 대한 평생교육학적 과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평등추진센터에서 드러난 남성 고령자의 개호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검토를 통해 개호에 대한 남성의 인식변용과 초고령 지역사회의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지역사회 남성의 개호활동 참여와 인식의 변용

佐藤一子(2003: 61-65)는 “젠더 혹은 사회적 약자와의 공생”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배움의 실천적 가치창조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사회참여활동이 국가·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성·지역성”의 재구축과, 비영리활동을 지향하는 NGO·NPO단체의 “생활과제·지역과제”의 학습과 관련되어 주민의 지역사회교육의 전개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실천성에 기초하여 지역사회교육을 도모해온 일본사회는 1970~90년대 사회변혁의 슬로건으로 성역할을 내세움으로써 여성학·남성학의 형성·발전, 나아가 교육학, 사회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성역할 개념의 도입을 통해 종래 인식하지 못했던 “성별 구성과 성차별”(天野正子, 2009: 5)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규명해 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友野清文은 “성에 기초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은 차별이며, “정형화된 역할” 철폐를 위한 인식전환교육의 필요성을 역설(友野清文, 2013: 11-15)함으로써 “남성은 밖, 여성은 안”이라는 이분법적 젠더역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적 다양성에 입각한 성역할 접근방식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젠더규범 극복의 필수불가결성은 성역할 유통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육아와 직장 간의 갈등”, “남녀의 역할분담”, “업무상의 남녀역할”(Dreyer, 1981: 173)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가 요구되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 남성 개호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젠더인식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目黒依子·矢澤澄子·岡本英雄, 2012; 律正敏, 2013).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남성의 인식은 “지속성을 가지며 변화 가능한 심적인 모든 경향의 체계이고 구조화하는 구조, 즉, 실천과 표상의 산출·조직의 원리로 작용하는 본질을 지닌 구조화된 구조”(Bourdieu, 1986: 170; Bourdieu, 1980=1988: 83)로서 비판적 회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면화 혹은 신체화된 가치관, 삶의 방식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획득한 관습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Bourdieu, 1990: 52-65). 결국, 남성의 젠더인식을 사회화된 성향의 총체, 이른바 하비투스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고정적 성역할분담에 대한 남성의 의식전환교육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인식변용과 비판적 성찰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자아의 가치관과 자아의 인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세계관에서 형성된 기본적 전제(assumption)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제공(Patricia Cranton, 1999: 208-210)함은 물론, 교사주도형학습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활동에 참여, 체험함으로써 인식변용의 주체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자기결정적 인식변용학습의 원동력이 된다.

이와 같이 인식의 사회화 수정을 반영코자 한 남성의 개호활동은 지역사회라는 “집단의 모든 특성 혹은 다른 집단의 특성”에 의하여 생성되는 하비투스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됨은 물론, 개인의 처지와 성향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Bourdieu, 2009:

261; Grenfell, 2012: 91)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 복잡한 지역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는 “하비투스”의 신체화”라는 “개인적 의식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성이 남성의 개호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해서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성만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온 일본의 개호활동문제는 이러한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千田有紀, 2013: 135-136), 즉 남성의 하비투스과 사회활동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Rawls는 그의 저서 『Political Liberalism』 (1992)에서 “생애를 통하여 사회적 협동이 가능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공평한 조건을 기꺼이 존중하는 개인만이 평등한” 개호활동을 실천하는 지역주민임을 역설하였는데, 이에 Kittay는 개인의 윤리와 사회적 측면에서 개호활동은 남녀평등을 전제로 한 활동이며, 이러한 평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협동”은 평등한 사람 간 “상호행위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Kittay, 2011: 55-56)을 통해 획득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사회적 관계와 개인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Kittay와 Rawls의 개호활동은 Kittay가 사회적 배려와 관심, 그리고 인간의 관계성 지속에, Rawls가 동등성(Kittay, 2011: 56)에 각기 중점을 두고 개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임신·출산이 가능하다고 하여 육아·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해온 인식의 억압성에 대한 이탈을 부각시키고자 한 주장으로서 개호활동에 대한 남녀의 평등성을 사회적 협동의식<sup>3)</sup>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사회와 개인 혹은 개인 간의 공동체적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남성의 개호활동은 상호공유·상호공생이 가능한 “사회적 협동”을 바탕으로 젠더규범에 대한 인식변용(perspective transformation)의 교육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지역 남성의 개호활동을 이해하고 검토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협동”의 식은 지역공동체적 관계성 속에서 남녀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며, 나아가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의 중핵적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사랑의 노동”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 개인의 내면적 고통까지 배려하지 못하고 길들여져 온 개개인의 의식에 대해 일본의 지역사회는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학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였다(春日キスク, 1997: 25). 특히, 남성들은 개호역할을 합리화해온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이분법적 젠더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영역할 의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민과의 새로운 인간관계형성을 통해 퇴직 후의 고독감 방지와 삶의 보람을 가지고 자립생활할

3) Kittay와 Rawls는 개호활동을 행하는 자(시혜자)와 수혜를 받는 자(수혜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개인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Rawls가 시혜자와 수혜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한 반면, Kittay는 양자 간의 동등성보다 시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인간의 관계성” 지속을 시혜자에 대한 이해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두 인물은 개호활동에 있어 사회적 협동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Kittay는 Rawls와 달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도움과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로 보고, 시혜자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인식변화 또한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나아가 남성의 주체적 학습활동에 따라 기존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여성의 임파워먼트 구현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2. 남성의 개호활동에 담긴 교육적 의의

일본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은 1999년 “육아를 하지 않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라는 인상적인 선전 문구의 확산화를 통해 남성이 가정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형성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육아하는 남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남성이 육아를 비롯하여 가사, 개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의식계발과 그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성의 가정생활 참여활동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요인에 대해 目黒依子 등은 장기불황과 급변하는 국제환경,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사회 속에서, 장기고용 및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형 고용관행”의 붕괴에 따른 “남성 부양형 가족의 형성과 유지”의 곤란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目黒依子·矢澤澄子·岡本英雄, 2012: 23-24). 결국, 남성의 성역할의식과 자기정체성의 변화, 이른바 “남성성”에 대한 의식과 행동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패권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에서 벗어나 “흔들리는 남성성”으로의 전환을 도모한 일본 지역사회의 대응이며, 이를 위해 남성성의 변화를 육아·가사노동·관혼상제·개호와 같은 “가정생활 참여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사회 참여활동” 속에서 폐색화되기 쉬운 남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형성 및 확대, 더 나아가 남성의 성역할분업의식의 양성이라는 평생교육학적 접근을 통해 해결코자 하였다는 특성이다.

Bauman은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해 “관계의 기피와 관계에 대한 욕구가 병존”함을 지적하고, 종래 정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유대관계가 붕괴되고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만이 오직 성립되는 시대적 특성을 혹평하였으며, 특히, 개개인의 유동적 성향의 강화로 인한 동반자적 관계의 희박화를 지적하였다(Bauman, 2000: 212). 즉,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연대구축(連帶構築)”에서 “연대소비(連帶消費)”라는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관념으로 변질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藤村正之는 “개인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추세에 항거하고 연대의 꿈을 좇는 「협동성」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얼마 안 되는 진폭 속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그 연대라는 사회적 과제는 개인이 머무름 곳”(藤村正之, 2013: 22-23)을 찾는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두 인물이 생각한 “관계”란 지역사회활동 속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향상의 요청으로써 자칫 개인화로 인해 소원해질 수 있는 개호활동

의 “연대소비를 한탄하기보다 연대가 다시 생산될 수 있는 시민적 태도와 방법 모색”(藤村正之, 2013 : 23)에 힘을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남성의 직장 내 “집단적 관계성 및 가족 간 융합”의 약체화 현상을 동반하는 개호활동의 개인화 현상에 대해 Fraser(1997)는 “보편적 개호 제공자론”을 제시하였다. 동 이론은 젠더규범의 하나로 고착화되어 왔던 여성 개호활동의 성역할분업인식에 대한 “사회변혁론”으로서 남성이 지역사회·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개호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권(公共圈)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三成美保는 Fraser의 공공권을 ①목적·대상의 차이(시민적 공공권=공·정치=주/대항적 공공권=사·생활=종), ②담당자의 차이(시민적 공공권=남·다수자/대항적 공공권=여·소수자), ③역할분담의 차이(조직의 결정권=남/무임금 노동=여)라는 3가지의 비대칭적 젠더측면(三成美保, 2007: 45)에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사회의 공적·사적 영역에 여전히 이원적 젠더규범이 공공권 내에 온존하고 있음을 비판하였으며, 뿌리 깊은 젠더적 편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혁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Bauman과 藤村正之은 인간관계구축을, Fraser와 三成美保는 젠더규범에 대한 인식변화를, 각기 남성의 개호활동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로 꼽았는데, 결국 4인이 주장한 “개호의 사회화”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한 개호활동의 특성으로서 일본 지역사회의 움직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사회전체가 지지할 수 있는 개호조직체계의 형성을 위해 「개호보험법」(2000, 법률 제123호)의 도입을 통해 개호활동의 장기화와 개호문제의 부작용을 제거 혹은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동법은 국가나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지방자치단체)이 아닌 시정촌(市町村, 기초지방자치단체)이라는 지역사회 자체를 개호제도의 보험자임을 밝힘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개호활동의 지원·교육 실시의 주체자임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개호활동의 사회 정착화를 위해 시정촌에 남녀공동참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남녀의 주체적인 학습, 활동, 교류의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유대관계형성은 물론 남성의 성역할분담에 관한 의식·지식 향상, 그리고 개인·지역주민의 상호성장을 결부시키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의 개호활동은 “삶의 보람과 사회참여활동을 목표로” “건강한 고령자교육”을 지향해온 지역사회교육의 실천과 깊은 관련성을 맺으며 전개(堀薫夫, 2006: 217-218)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한 남녀공동참여센터의 지역사회교육적 기능은 본문의 에세나오타의 남성 개호학습활동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성의 개호활동에 초점을 두고 고찰한 본 연구는 남녀평등실현을 근거로 하는 이념적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남성이 지역사회 내 주체적 개호학습활동을 통해 주민 간 협동적 연대감 구축과 나아가 개호에 대한 젠더인식변용의 계기를 제공하는 일상 속 평생학습의 기능 확충에 매우 중

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남녀의 성별역할분업을 상보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해온 일본 동경도 오타구 남녀평등추진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남성의 개호학습활동에 대하여 젠더 불평등의식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 이유는 개호활동에 대한 남성의 젠더인식변용이 지역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온 남녀평등센터의 평생교육적 역할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남성의 개호학습활동이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시적 현상론에 의거한 고찰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추진센터의 실태연구를 통해 남성 개개인의 의식적 문제를 다루는 미시적 메커니즘연구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고는 남성의 개호학습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남녀평등추진센터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사회적 배경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동 센터가 실시한 남성 개호학습프로그램과 그 실천상황 등 구체적인 학습실천사례를 고찰하기로 한다. 남성의 젠더인식변화를 가져온 “비판적 성찰”과 “협동적 연대감”에 주안을 둔 사례 고찰은 “남성의 개호활동 참여와 인식변용”이라는 이론적 배경(Ⅱ)을 바탕으로 남녀평등추진센터가 지향한 개호학습활동이 어떠한 교육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동 센터를 기반으로 한 주민 본위의 지역사회교육활동을 통해 남성의 젠더의식과 그 변화과정을 규명하는 실증적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의 변용에 발맞춘 남성 개호학습의 과제 및 향후 한국사회의 고령자문제에 대한 교육의 방향과 가치관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분석 자료를 활용코자 한다. 먼저, 개호활동에 대한 의식변화를 기대했던 국가정책검토 및 남녀평등추진센터의 실태 고찰을 위해 내각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의 정책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나아가 일본 국내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사회교육학, 생애학습, 남성·여성교육학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 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개호학습활동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동경도 오타구 소재의 남녀평등추진센터에서 전개되고 있는 의식계발교육 또는 개호학습 등의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및 내용, 그리고 남성의 인식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동 센터 내부 보고서(2010~2013)에 드러난 강좌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소감내용 및 학습성과·과제를 검토한다. 끝으로, 실제 학습에 참여한 센터 직원의 인터뷰 조사(2014년 7월, 오타구 직원A, 치요다구 직원B)내용을 바탕으로 남성의 개호학습활동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 IV. 사례분석(1)

### 1. 동경도 오타구의 남녀평등추진센터 “에세나오타”의 발자취

동경도는 근대적 성역할분업에 대한 불합리성과 불평등성을 타파하고 남녀가 대등하게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 참여·책임을 지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이상을 실현코자 노력해왔다. 그 방안으로 남녀의 임금격차와 고용형태 등의 취업환경의 개선, 정치적·행정적 배려, 지역 남녀평등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구하고 있다(東京都, 2014: 서문). 특히, 남녀평등센터는 동경도 23구(區) 17시(市) 1촌(村)에 최소 1개소씩이 설치되어 “일과 가정·지역생활의 조화를 이룬 생활의 실현”과 일상적 학습 시행을 중시한 여성사회교육사업의 촉진·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 동경도 오타구 소재의 남녀평등센터 “에세나오타”는 스페인어로 무대·광장이라는 의미의 에세나(esencia)와 행정구획명인 오타구의 합성어로서 도내에서도 모범적으로 남녀공동참여사회의 실현을 위해 성역할분업의식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역주민의 자주적 지역 활동의 장으로서의 공간적 기능을 지닌다. 여기에서 특필할만한 점은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인식 수정을 위한 학습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며, 그 내용은 육아·개호·가사 등 남녀공동참여와 관련한 의식개발사업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고려한 사회교육사업이 주를 이루으로써 남녀 역할을 상호보조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에세나오타는 주민과 관(官)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1977년 “오타구립(大田區立) 부인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エセナおおた, 2013: 6). 이후 1980년에 유식자와 동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여성문제간담회”가 설치되어 여성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어 1981년과 1982년에는 각각 여성문제와 관련한 의식조사의 실시와, 여성회관운영협의회가 발족되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연도별 계획(エセナおおた, 2013: 4-6)을 통해 성역할분업개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1984년에는 여성문제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기 “오타구 8개년 행동계획”이, 1992년에는 제2기 남녀공동참여사회실현을 위한 “오타구 4개년 행동계획”이 실시되었으며, 1996년과 2001년에는 각각 제3기와 제4기 “오타구 남녀평등추진 5개년 계획”이 개시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지역·가정·직장·학교 등 일상 속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제5기 “오타구 남녀공동참여추진 5개년 계획”이 책정되어 남녀

평등을 위한 활동에 주민의 적극적 동참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제6기 “오타구 남녀공동참여추진 5개년계획”을 통해 근대적 성역할 분업 수정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 인식이 가능한 지표·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특히 제4기에는 “지정관리자제도 및 관리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 독려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주민들은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고려하였으나 남녀평등센터의 자주적 관리·운영을 지향했던 만큼 “주민자주운영위원회”를 모체로 한 NPO설립과 NPO법인화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주민의 자주적 활동으로 결성된 “NPO법인 남녀공동참여오타”가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기관정보지 『파스텔(パステル)』 발행을 비롯하여 강좌, 강연회, 전시, 그리고 시설의 유지관리 및 대관업무 등과 같은 사회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エセナおおた, 2013: 8).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설립된 에세나오타는 활동 보고회, 정보지 발간, 남녀공동참여에 관한 의식계발사업, 남성 의식계발사업 및 생활과 일의 균형 사업,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사업, 여성취로지원사업, 주민과의 협동·교류, 보육교육 등의 실시와 함께 이들 교육사업활동을 통해 남녀평등에 대한 제언과 실현 방책, 그리고 일과 가사의 균형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나갔다(エセナおおた, 2013: 13-14).

## 2.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에세나오타의 의식계발교육

### 가. 개호학습을 통한 남성의 의식계발과 사회참여활동의 촉진

상술한 바와 같이 에세나오타는 종래 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교육사업에 남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젠더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것은 지역 활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시간의 노동문제에 대한 제고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개호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남성의 의식과 행동의 변혁”(内閣府, 2012: 서문)에 노력해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는 최근 3년간 에세나오타가 지역사회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계발교육사업의 사례로서 성역할분담문제에 대한 남녀평등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강좌내용을 살펴보면, “육아·가사·남성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 학습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강좌별 참가 인원수의 증가추세에서도 나타나듯이 남성들은 3강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육아·가사”는 30대 이상의 기혼 남성과 자녀가 서로 협력하여 피자나 메밀국수를 만들거나 함께 공작놀이와 체조를 함으로써 자녀와 스킨십을 나누고 아이들의 놀이문화 이해를 통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육아”강좌는 여성의 존재에 대해 단순히 남성만의 이해를 요구하기보다 자녀들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젠더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식확산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주로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실시된 “남성의 삶의 방식”은 육아와 가사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개호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종합적 성격의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평등한 성역할분담에 대한 의식함양에 주안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3강좌 수료 후, 학습자 간에 그룹이 형성됨으로써 남성들의 인적교류가 지역사회활동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낳았다(エセナおた, 2012: 2).

<표 1>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에세나오타의 교육사업

사업명 및 강좌명	실시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 영유아와 남성 보호자: 아빠의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시간 (영유아를 위한 춤과 마사지)	54쌍	54쌍	65쌍
• 유아, 초등학생과 남성 보호자: 아빠와 함께(춤, 공작놀이, 체조), 여름방학 아빠와 도전(피자, 과자, 메밀국수 만들기)	68쌍	65쌍	99쌍
• 중고령자세대의 남성: 남성의 삶의 방식(개호, 가사활동의 촉진)	24명	26명	48명

\* 주 1: 유아·남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강좌: 2011년과 2012년은 1회, 2013년은 2회 실시

\* 자료: エセナおた, 2014년 7월 9일 에세나오타의 직원 A씨로부터 받은 내부자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성의 삶의 방식”의 핵심강좌인 고령자 개호활동을 통해 남성의 의식개발과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종래 육아·가사와 관련한 남성교육은 여타의 기관, 예컨대, 가와사키시(川崎市) 남녀공동참여센터 스퀘라무21(すくらむ21), 미에현(三重縣) 남녀공동참여센터 후렌데미에(フレンテミエ), NPO법인 엔트리(エンツリー), 모리오카(もりおか) 여성센터 등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고령자 개호활동 정착에 의한 젠더프리(gender free) 촉진을 유도하는 여성교육기관은 거의 존재하는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설령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여도 지역사회교육의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동경도 치요다구(千代田區) 남녀공동참여센터가 이에 해당되며 다음은 동 센터 직원의 인터뷰 내용이다.

치요다구는 정부기관과 고급맨션뿐만 아니라 고령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령자 개호와 관련된 일을 센터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치요다구 구청 복지과 담당이거나 사설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역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B씨의 인터뷰, 2014년 7월 8일).

이와 달리 에세나오타는 지역사회의 고령자 증가라는 인구학적 현상의 도래를 핵가족화의 진행과 지역공동체의 붕괴라는 사회적·역사적 조건하에서 인식하고, 이러한 고령화문제

를 여성의 성역할에 의존하기보다(天野正子, 2009: 8) 남성의 고령자 개호교육을 통해 타개하고자 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50대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개호활동참여와 지역사회참여를 틀로 한 “남녀공동참여의식의 양성, 실태·과제의 파악·이해, 과제해결·실천력의 형성”을 목표(エセナおおた 내부자료, 2014년 7월 7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의식계발과 남녀공동참여

에세나오타는 일정 연령대에 편중된 개호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가능한 많은 연령대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개호활동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코자 “남성의 교양”과 “고령자 생활” 강좌를 고안하였다. 앞서 살펴본 “남성의 삶의 방식”이 50대 이상의 남성을 중심으로 개호학습을 실시하였다고 한다면 “남성의 교양”과 “고령자 생활” 강좌는 3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그 대상으로 직장밖에 알지 못했던 남성들에게 여성이 전담해왔던 가정일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감대 형성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에세나오타는 매년 에세나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설명회, 워크숍 등을 실시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에세나포럼의 목표와 활동내용

목 표	학습명	활 동 내 용
• 젠더역할에 대한 인식의 폭 확대 및 공감대 형성 위한 집단토의	설명회	• 남녀공동참여사회실현에 관심을 가진 단체를 대상으로 에세나포럼의 개요 및 취지 등 젠더관련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촉구
	워크숍	• 남성 보호자 간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구축, 남성으로서 젠더역할(육아, 가사, 개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기회 제공과 일상생활에의 적용
	강연회	• 남녀평등 및 인권의식계발, 여성의 임파워먼트 촉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교류회	• 단체 간의 친목 및 공감대 형성 도모를 위한 식사모임의 실시
	반성회	• 성역할분업학습의 기회 및 젠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 획득

\* 자료: エセナおおた, 2012: 6-15; 2013: 13-22을 참조하여 작성.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에세나포럼은 설명회를 통해 젠더사업의 이해와 지원을, 워크숍을 통해 젠더인식의 생활화와 인적네트워크의 형성을, 강연회를 통해 인권의식계발을, 그리고 교류회와 반성회를 통해 워크숍 등의 토의 때 느낄 수 없었던 단체 간의 친목도모와 젠더학습의 기회를 각기 제공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하게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태도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대표적 사례로 워크숍과 강연회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각 강좌에 참여한 학습자의 소감에서도 드러난다.

새로운 단체 결성을 통해 학습을 계속하는 가운데 생성되는 의문과 깨달음을 강사와 함께 생각하는 워크숍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본 강좌의 학습효과를 실증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었으며, 성역할분담의식에 대한 고달픈 삶에 대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젠더에 대해 이해하고 개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エセナおおた, 2013: 20-21).

국가의 성장전략인 여성의 활약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기에 시의적절한 내용이었다. (또한) 질의응답이 활발하여 학습 참가자의 의식, 흥미,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답게 있는 그대로, 남녀는 다른 생물이며 서로 칭찬하는 것을 생활에 활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앞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을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다(エセナおおた, 2012: 9-10; 2013: 16).

학습자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세나오타의 워크숍과 강연회는 그룹별 감상 및 발표라는 상호학습을 매개로 젠더에 대한 오해와 폐해의 인식,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공감대 확산을 통해 젠더인식수정에 대한 사회적 태도변화의 장이 되었다.

## V. 사례분석(2)

### 1. 에세나오타의 의식계발교육과 인식변용

#### 가. 비판적 자아성찰을 매개로 한 인식변용

개호활동참여와 지역사회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남성의 삶의 방식”은 지역인적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①지역사회 공헌활동, ②우리들의 고령자 개호의 체험담, ③즐거운 노후 연출, ④퇴직 후 10만 시간, ⑤아내·가족과 좋은 관계 형성하기, ⑥인생경험을 살려 지역에 공헌하는 요령, ⑦건강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에 보람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방법 (エセナおおた, 2010: 35-36; 2011: 26-27; 2012: 23-24; 2013: 32-33) 등 퇴직 후의 개호활동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자아성찰, 가족·이웃과의 인간관계형성,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세나오타는 이러한 다양한 학습강좌를 통해 남성의 의식계발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남성의 삶의 방식”과 고령자 학습

실시	주제 및 활동내용	강사(소속)
2010년	①지역사회 공헌(봉사)활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과 비판적 자아성찰	• 福留强 (세이도쿠대학교수)
2011년	②우리들의 고령자 개호의 체험담: 개호의 실태와 장래의 방향, 남성 개호체험자의 경험담 공유하기 및 토의	• 古澤里美(오타구남녀 공동참여센터 부이사)
2012년	③즐거운 노후의 연출: 퇴직 후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 향후 개호를 위한 부부관계의 개선과 상호협력 및 이해증진	• 大嶋正義(와야가복지 재단 후견인)
2013년	④퇴직 후 10만 시간: 퇴직 후 건강, 개호, 지역과의 관계 등 배 이비뽀세대 남성을 둘러싼 환경·사회정세를 고려한 강연	• 土堤内昭(닛세이 기초 연구소 주임연구원)

\* 자료: エセナおおた, 2010: 35-36; 2011: 26-27; 2012: 23-24; 2013: 32-33.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4년여에 걸쳐 실시된 에세나오타의 강좌는 남성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아성찰과 고정적 성역할분업의식의 해소, 그리고 평등감 체득”을 향상시키고자 한 고령자 학습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0년도에 실시된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즐겁게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자”에게 비판적 자아성찰이 가능한 평생학습의 장을 지원코자 마련된 강좌로서 타율에서 자율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주체(남성 고령자)와 주체와의 “상호 주체적 관계를 통한 대화”라는 실천(社會教育基礎理論研究會, 1991: 19)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가 지역과제를 생각하고 스스로가 이행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적 인식전환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본 강좌에서 지역사회 참여형 평생학습을 역설해온 세이도쿠대학(聖徳大學) 장애교육문화학과 福留强(2013)교수의 발언이다.

우리들 주위에는 본래 뛰어난 힘이 존재하지만, 무언가에 자신을 활용하려고 생각하면서, 이를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사람이 많다. <중략>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을 높임과 동시에 그 성과가 지역에서 이용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위에서 작은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도전할 것을 호소해 본다. 먼저 자신부터 “시동”을 거는 것이지 않은가(内閣府, 2003: 10).

福留强교수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신을 활용하고 자신을 새로이 창조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삶의 방식”(エセナおおた, 2010: 35)을 체득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아성찰에 주안을 두고 전개된 본 강좌는 남성의 어떠한 변화를 도출해내려고 했는지 각 강좌에 대한 학습자의 소감내용을 정리·검토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개호학습자의 강좌소감과 젠더인식변용

강좌명	주요 소감 내용
지역사회 공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평등인식의 함양을 위해 남녀가 함께 하는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li> <li>남녀공동참여계획에 어린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li> </ul>
고령자 개호에 대한 체험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공동참여 관점에서 개호활동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면 안 된다.</li> <li>생활태도, 언행은 가족에게도 주변에게도 이해받고 있으니 바꿀 필요 없다.</li> </ul>
즐거운 노후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내의 입장에서 대화가 가능해졌으며,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li> </ul>
퇴직 후 10만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내 이외의 여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신선했다.</li> <li>여성의 의견을 통해 젠더를 보다 인식할 수 있었다.</li> </ul>

\* 자료: エセナおた, 2010: 35-36; 2011: 26-27; 2012: 23-24; 2013: 32-33을 참조하여 작성.

개호학습자의 강좌소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 개개인의 젠더인식변용을 통해 여성들에게 의탁해 온 개호에서 벗어나 남녀가 서로 협동하고 공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남성의 비판적 자아의식개발이 유도되었다. 즉, “남성 삶의 방식” 강좌는 여성의 개호를 당연시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여 가족과 자신의 노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고령자 개호 스타일과 시스템 창조”(律止正敏, 2013: 8-9)를 지향하는 지역사회교육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협동적 연대감 구축에 기반을 둔 인식변용

앞서 살펴본 개호학습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남녀공동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변화를 나타냈다. 그럼 이러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에세나오타가 실시한 고령자 개호학습에는 어떠한 강좌가 있었는지 2012년과 2013년 2년간에 걸쳐 각기 실시된 “남성의 교양”과 “고령자 생활”에 대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남성의 교양”과 “고령자 생활”에서 실시된 고령자 개호학습

공통목표	강좌	주요 내용	강사(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활동 참여 및 남성 개호 활동 촉진</li> <li>남녀공동참여의식 촉진</li> <li>평생 학습 촉진</li> </ul>	남성의 교양	① 초고령사회의 실태와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 坂林哲雄(고령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② 노년기 준비, 초고령사회의 가족의 의미 등 20대부터 노년기를 생각해보기	• 荒井浩道 (코마자와대학 부교수)
		③ 삶의 보람, 타인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상호공조의 중요성 깨닫기	• 嵯峨座晴夫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생활</li> </ul>	고령자 생활	① 지역사회와 공조하고 자조능력이 있는 고령자 육성, 재난방지에 여성의 관점 도입	• 青木千恵(오타구재난방지위원) 외 에세나오타 직원들
		② 주체적 인생설계와 남녀공동참여의식개발	• 高村花美(고령자생활관련 교문)
		③ 고령자의 치매예방 및 건강체조의 일상화를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실시하기	• 田口礼子 (오타구 간호사)

\* 자료: エセナおた, 2012: 58-59; 2013: 43-44을 참조하여 구성.

이처럼 에세나오타는 고령자의 생활 및 개호에 대해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 간호사 등 각 계각층의 강사 초빙을 통해 남성의 젠더인식에 대한 연대감 구축에 힘을 기울여 왔다. “남성의 교양”과 “고령자 생활”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남성들이 개호학습이라는 사회참여활동을 계기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자조(自助)에 의존하는 자기 결정적 학습을 유도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과의 상호공조를 형성함으로써 주체적 자립생활이 가능한 인생설계는 물론, 자연스럽게 남녀공동참여의식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13년도 3회에 걸쳐 실시된 “남성의 교양”강좌에서는 노년기 생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실태 및 개호보험제도 등 개호학습의 사회적 개념과 함께 노년기의 가족의 의미, 그리고 “삶의 보람이 있는 풍부한 인생”을 위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여성, 동료)에 대한 이해와 공조의 마음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에세나오타 직원이자 강사인 A씨는 강좌의 교육적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제껏 개호학습은 여성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최근엔 남성도 많은 수는 아니어도 개호라는 지역사회의 공통과제에 대해 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성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전환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중략> 단순히 개호에 대한 지식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남성들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그들 나름의 인간관계구축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요. <중략> 이러한 남성학습활동이 여성의 임파워먼트 형성 및 지역발전과 무관하지 않아요(A씨의 인터뷰, 2014년 7월 7일).

남성 학습자는 이처럼 젠더인식에 대한 상호의존적 연대감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지역과제이자 생활과제인 강좌라는 조직적 교육활동에 의한 결과로서 지역사회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강좌 강사인 코마자와대학의 荒井浩道 교수는 개호학습을 통해 “신뢰관계구축에 마음을 쓰고 경의를 가지고 대할 것”과 지속적인 지역네트워크형성·정보제공, 나아가 사회참여를 상호 독려(荒井浩道 외, 2013: 4)함으로써 이웃과의 인간관계의 형성 및 사회문화적 제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고령자 육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본 강좌의 학습소감을 통해서도 엿보인다. “이제껏 몰랐던 의사소통방법을 알게 되어 상대(아내, 동료)를 이해하게 되었고 의견을 경청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음을 느꼈다. 앞으로 부부 가운데 개호가 필요하게 된다면 보살필 것을 맹세한다”(エセナおた, 2011: 28; 2012: 59). 결국, 개호학습활동에서 드러난 상호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적관계구축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협동적 연대감이 젠더인식변용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남성의 교양” 강좌는 개호활동·개호예방과 관련한 기초적인 학습이자 지식습득을 위한 학습으로서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연대감 혹은 공감대의 형성, 나

아가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은 성찰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학습과정은 개호보험이라는 법적제도장치의 마련을 비롯하여 타인과의 공생의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남녀공동참여사회실현을 위한 남성의 의식개발을 도모하였다는 점에 본 강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 생활”은 “남성의 교양”과 달리 개호학습에 여성을 참여시킴으로써 남녀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협동적 연대감 형성을 기대하였다. 다음은 본 강좌의 강사 青木千恵가 주장한 재해방지교육의 주요내용이다.

여성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참가하여 체제를 생각하고 일률적으로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닌 젠더의 관점을 올바르게 갖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피해지역에서는 자조(自助)를, 피해지역 이외에서는 공조(共助)를, 여기에 공조(公助)가 더하면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것”이다(大田區, 2012a; 2012b)

青木千恵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남성 주도형 재해방지가 아닌 남녀공동참여의 관점, 즉 젠더의 관점에 착안한 재해방지·지역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배경에는 지역 주민 간의 “자조”(自助), 남녀 간의 “공조”(共助), 지역사회의 “공조”(公助)라는 3요소의 이해를 통해 남성의 젠더인식변용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고령자 생활”강좌에 참여한 학습자의 소감에서도 드러난다.

남녀공동참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꼈다. 앞으로 강좌 개설은 남녀가 관계없고 고령자에게 중요한 학습이 무엇인지 등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모두 모여서 하는 것이 매우 좋다. 고령자 생활은 치매방지, 건강체조의 일상화 등 개호와 관련한 의학적 지식의 습득 및 실천은 물론, 인생에 있어 건강과 삶의 보람의 불가분적 관계성, 그리고 주체적 자아인식을 통한 인생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エセナおた, 2013: 44).

본 강좌는 남녀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실생활의 공통적 과제에 대한 협동적 연대감과 공조(共助)의 필요성 인지를 통해 남성의 젠더인식변용을 도모하였다. 다시 말해, 젠더인식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생활학습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 생활인식과 정신적·생활적 자립, 그리고 개호의 일상화에 대한 인식향상을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에세나오타의 인식변용교육의 실천적 검토

앞서 짚어본 에세나오타의 개호학습은 퇴직 후 “기업사회(수직사회)에서 지역사회(수평사회)로의 전환” 등 의식개혁이 어렵고 생활적응에 힘들어 하는 남성에게 대해 지역사회참여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 부부관계, 친구 만들기, 삶의 보람,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비판적 자아성찰(エセナオオタ, 2012)를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협동적 연대감 형성의 장의 역할을 했다고 평할 수 있겠다. 결국, 종래 지역 활동으로부터 배제되어왔던 남성들이 젠더의 관점에서 개호학습이라는 “자립적·집단적 학습문화의 창조를 통해 참여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 자체”(佐藤一子, 1998: 154)가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분담의식의 변혁이었다고 평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강좌의 학습 참여자는 대부분 퇴직 후의 6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에 “근무시간 때에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피곤해서 학습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직장에서도 근무 중인 젊은층을 좀처럼 끌어들이지 못하고 퇴직 후의 6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한성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에세나오타에서는 고령자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남성의 젠더인식변용을 촉발시키고자 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에세나오타의 남녀평등추진사업 담당자이자 강사인 青木千恵·定池由紀子は “남성이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가치관 공유를 통해 동료가 생기고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남성의 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青木千恵·定池由紀子, 2010: 2)한다는 사실을 역설하였다. 즉, 여성사회교육시설을 통한 남성의 개호활동참여는 단순히 친목도모를 넘어 스스로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식변용의 촉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형성되어온 지배적 문화, 즉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고양식에 대한 성찰적 학습참여를 통해 자기변용의 유발을 도모한 지역사회교육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에세나오타에서는 어떠한 학습과정을 통해 남성의 성역할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는지 2012년도에 실시된 개호학습의 전개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학습활동의 전개과정

학습주제	학습내용	학습전개과정
고령자학습(1회)	자기소개	①자기·타인소개, ②미리 준비한 자기소개와 즉흥적 자기소개
과제해결 및 커뮤니케이션(2회)	이웃과의 공생과 교제	①이웃과의 공생과 교제에 관한 그룹워크·개인발표, ②타인에 대한 이해와 교제방법의 습득, ③공생을 통한 남녀공동참여에 대한 자아인식 마련, ④질의응답
과제해결 및 커뮤니케이션(3회)	가정 내 커뮤니케이션	①가정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각자의 가정문제를 분류·토의, ②전체토의와 결론도출, ③타인과 자신의 가정문제에 대한 인식, ④젠더역할에 대한 비판적 자아의식함양, ⑤질의응답
즐거운 노후 연출(4회)	20년 10만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기	①퇴직 후의 인생설계란? ②고령자 부부의 관계 개선에 대해 사례를 들고, 상호의견교환을 통한 참가체험형 수업, ③여성의 존재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④질의응답
전체토의 및 반성회(5회)	강좌에 대한 회고 및 정리	①결론도출과 비판적 회고, ②강좌를 통해 느낀 젠더인식과 지식에 대해 발표, ③그룹별 종합토의 및 결과 작성, ④정보공유

\* 자료: エセナおおた, 2012: 23-24를 참조하여 정리.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세나오타에서 실시된 강좌는 공생적 관점에서 남성들이 이웃과의 교제 및 가정 내의 의사소통을 통해 젠더문제에 대한 비판적 자아인식을 추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경험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실생활에서 남녀공동참여의식을 육성코자 하였다. 젠더의식변용을 위한 학습방법으로는 강사주도형 학습활동이 아닌 참가체험형 학습활동이 이용되었다는 점, 또한, 남성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학습활동을 형성해 나갔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회 강좌에서는 학습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2회·제3회 강좌에서는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이웃·아내와의 소원한 인적관계성을 공생의 관점에서 체험하게 함으로써 젠더역할에 대한 비판적 인식변화를, 제4회 강좌에서는 자신의 인생설계 속에서 여성과의 관계 개선과 여성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을, 제5회 강좌에서는 매회 강좌를 통해 느낀 젠더인식과 지식에 대한 그룹별 종합토의와 발표를 매개로 결론을 도출하고 문서화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실시한다. 특히, 당연시 여겨왔던 젠더역할론에 대해 깨닫고, 이웃과 교제할 기회가 소원했던 남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함으로써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젠더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협동”에 입각한 인간관계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에세나오타의 강좌는 강사주도형 의식계발교육에서 벗어나 남성들 스스로가 젠더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 이른바 주체적 인식변용학습이었다. 또한 이러한 학습방법은 남성의 인식변화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젠더평등·사회참여의 촉진, 그리고 남성을 포섭한 젠더불평등 문제해결방법으로서 여성들에게 자신과 사회를 변혁가능한 힘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파워먼트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이상, 본 연구는 일본의 남성 개호학습을 사회참여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기관 에세나오타의 교육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성별역할분업에 대한 남성의 젠더인식변용과 그 교육적 의의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검토의 결과, 에세나오타는 개호학습활동이라는 지역사회교육활동을 통해 남성의 젠더인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 표출을 유도함으로써 여성 편향적 개호인식변용에 노력해왔다. 그 모범사례인 동경도 오타구 “에세나오타”의 개호학습활동의 실태를 살펴보면, (1)비판적 자아성찰을 도모한 상호 주체적 개호학습을 통해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분업의식과 평등감 체득에 대한 자기결정적 인식전환을 도모함으로써 젠더프리 촉진을 유도하였다는 점, (2)협동적 연대감 구축에 기반을 둔 타인과의 상호학습을 매개로 젠더인식수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촉진을 통해 사회적 태도변화를 기대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었다. 즉, “에세나오타”의 개호학습활동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기보다 젠더역할론의 인식부재로 인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고양식에 대한 조직적 사회교육활동, 이른바 “강좌”라는 자립적·집단적 학습문화의 창조에 남성의 참여를 촉발시킴으로써 성역할분업의식의 변혁을 견인해 왔다. 특히, 남성의 고령자학습과정은 강사주도형 학습활동을 극복하고 참여체험형 학습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남성 스스로가 젠더역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틀 형성을 통해 주체적 인식변용학습을 전개하도록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남성의 “근대적 성별역할분업의식의 유동화”(井上輝子, 1994: 16)를 매개로 남녀공동참여의식의 공론화가 이루어진 임파워먼트교육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의 의식을 상호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체형성과정과 관련된 논한 본고의 개호활동은 “의식의 내적변혁(internal change in consciousness)”을 지향하는 학습을 매개로 남성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학습은 개인의 인식변용에 주목한 “자아성찰, 개인적·사회적 환경의 변화”(豊田千代子, 1991: 150; 安川有貴子, 2009: 4)가 모두 존재하는 자기주도형 학습이자, 자기결정적 학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개호학습을 매개로 한 남성의 의식전환은 개인의 자율적·주체적 의지에 의해 촉발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현실 등에 대한 철저한 자아성찰을 통한 변용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을 통해 점진적으로 획득되며, 그 전제조건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적 학습이 불가결한 요소로 요구되었다. 즉, 에세나오타의 개호활동은 지역사회 속에서 여성의 젠더 평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실시·능력개발과 함께 개호학습과정에서의 일상적 접촉, 나아가 공통의 경험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지는 유대와 신뢰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지역커뮤니티의 교육력을 바탕으로 남성의 젠더인식

변용과 양성의 평등관 육성에 대한 주체적 실천능력을 함양코자 했던 점에서 지역사회교육의 형성이 내실화해갔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무엇보다 사회참여활동과정에서 형성된 남성의 젠더인식은 본문의 강좌소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여성들에게 의탁해 온 개호에서 벗어나 남녀가 서로 협동하고 공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남성의 비판적 자아의식개발과 실생활의 공통적 과제에 대한 협동적 연대감, 그리고 공조(共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사회참여를 통한 젠더인식변용은 젠더규범 극복이라는 성역할 유동화의 이면에 남성이 타인과의 연대 속에서 느끼고 실천을 통해 배움으로써 습득하는 공생적 가치에 대한 인지와 사회적 실천력, 즉 배움의 실천적 가치창조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일상 속에서 발휘되는 평생학습의 기능 확충에 매우 긴요한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향후 우리나라 고령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고령자의 의사소통적 강좌학습에 대한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일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 온 남성의 퇴직 후의 생활은 함께 지낼 가족과의 소원해진 관계회복 및 유대감 형성이라는 생활상의 소통문제를 축으로 가사·육아·개호 등 다양한 가정 내 역할이 요구되는 점이다. 이러한 남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학습활동에는 이웃·아내와의 소원한 인적관계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젠더역할에 대한 비판적 자아인식 촉구 및 협동적 연대감 형성, 그리고 타인 이해를 목표로 하는 대화적 학습(dialogic learning)에 기반을 둔 생활밀착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남성의 젠더인식변용 촉진에는 타인·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지역커뮤니티 교육력 함양이 요구된다. 에세나오타에서 실시된 남성 고령자의 젠더인식변용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이라는 전제에 대해 비판적 반문을 통해 시작되며, 새로이 획득한 지식과 경험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제와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가 자아성찰을 도모”(小池源吾·志々田まなみ, 2005: 12)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식변용과정은 ①개호문제라는 공통의 과제, ②남성 개호학습자 간의 인적관계, ③에세나오타라는 의사소통 가능한 공공의 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지역학습(community learning)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성의 젠더인식변용은 지역주민 간의 유대와 신뢰관계 속에서 젠더역할론에 대한 주체적 실천력을 육성하고자 한 지역사회교육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남녀공생의 관점에서 서로의 이질성과 공통성을 인지·용인할 수 있는 상대주의적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내 남녀상호 간의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는 유대와 신뢰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지역커뮤니티의 교육력 함양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셋째, 남성의 인식변용 촉진을 위한 참여체험형 학습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의 강사주도형 고령자 학습활동을 지양하고 남성 학습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행동하고 스스로가 계발(啓發) 가능한 주체적 인식변용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참여체험형 학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참여체험형 학습은 타인과의 상호학습을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태도변화와 공생적 가치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지역사회교육의 의미를 일깨울 수 있는 학습역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남성의 사회참여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간의 새로운 인적네트워크의 구축은 물론, 남성 고령자를 정태적 존재로 이해하기보다 타자와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실천·행동하는 동태적 존재로의 인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남성 개호학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여성사회교육기관 에세나오타의 교육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동경도 오타구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실증적 고찰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사회교육의 관점에서 남성의 젠더인식변용을 고찰하였지만 이것이 본디 개인의 자주적·주체적 행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식·기술의 일방적 전달행위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였다.

## 참고문헌

- 한승희(2007).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의 통합 구축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大和礼子(1995). 性別役割分業意識の二つの次元「性による役割振り分け」と「愛による再生産役割」. *ソシオロジ* 40(1), 109-126.
- 小池源吾・志々田まなみ(2005). 成人の學習と意識変容. *廣島大學大学院教育學研究科紀要* 53, 11-19.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3). *國土交通省白書*. 東京: 國土交通省.
- 社會教育基礎理論研究會 編著(1991). *學習・教育の認識論*. 東京: 雄松堂出版.
- 三成美保(2007). 公と私をジェンダー論から考える. *學術の動向* 12(8), 45-52.
- 律止正敏(2013). *ケアメンを生きる*. 京都: クリエイツかもがわ.
- 厚生勞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2009). *グラフでみる世帯の状況*. 厚生勞働省.
- 友野清文(2013). *ジェンダーから教育を考える*. 東京: 丸善プラネット.
- 社會教育推進全國協議會(2011). *社會教育・生涯學習ハンドブック*. 東京: エイデル研究所.
- Hilary Charles-worth(2012). 内側/外側: 女性と國際法. *國際女性* 23, 82-93.
- 總務省統計局(각 년도). *勞働力調査*. 總務省.
- 井上輝子(1994). 女性の社會進出と教育の課題. *文部時報* 1412, 16-19.
-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編(2009). *人口の動向: 日本と世界人口統計資料集*. 東京: 厚生統計協會.
- 社會教育推進全國協議會 編(2011). *社會教育・生涯學習ハンドブック*. 東京: エイデル研究所.
- 中村優一(1982). *現代社會福祉事典*. 全國社會福祉協議會.
- 荒井浩道 외(2013). ICTによる高齢者孤立防止ネットワーク構築. *社會情報學會(SSI)學會大會研究發表論文集*, 3-6.
- 青木千恵・定池由紀子(2012). *INFRMATION(40)*. 大田區立男女平等推進センター.
- 青木千恵(2012). *INFRMATION(41)*. 大田區立男女平等推進センター.
- 赤尾勝己・山本慶裕 編著(1996). *學びのスタイル: 生涯學習入門*. 町田: 玉川大學出版部.
- 藤村正之(2013). *協働性の福祉社會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律止正敏・齋藤眞緒 著(2007). *男性介護者白書*. 京都: かもがわ出版.
- 若桑みどり(2006). *ジェンダーの危機を超える*. 東京: 青弓社.
- 總務省(2013). *平成24年就業構造基本調査*. 總務省統計局.
- 天野正子 編集(2009). *性役割*. 東京: 岩波書店.
- 目黒依子・矢澤澄子・岡本英雄(2012). *揺らぐ男性のジェンダー意識*. 東京: 新曜社.
- 春日キスヨ(1997). *介護とジェンダー*. 廣島: 家族社.
- 東京都(2014). *東京の男女平等参加*. 東京都生活文化局.

- エセナおおた(2012). **2012年度報告書**. 東京都大田区立男女平等推進センター.
- エセナおおた(2013). **2013年度報告書**. 東京都大田区立男女平等推進センター.
- 内閣府(2012). **男性の地域活動への参画好事例集**.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 内閣府(2003). **女性のチャレンジ支援策について**.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 佐藤一子(1998). **生涯学習と社会参加**. 東京: 大学出版会.
- Bourdieu, P. 石井洋二郎 译(2009). **ディスタンクシオン I: 社会的判断力批判**. 東京: 藤原書店.
- 齋藤眞緒(2009). 男が介護するということ. **立命館産業論集** 第45巻 第1号. 171-188.
- エセナおおた(2012). 「**男の生き方塾**」チラシ. 大田区立男女平等センター.
- 安川有貴子(2009). 認識の変容にかかわる学習論の考察: J.メジローの変容的学習論からG.ペイトソンを読む. **京都大學生涯教育学図書情報学研究** 8. 11-28.
- 堀薫夫 編著(2006). **教育老年学の展開**. 東京: 学文社.
- Bauman, Zygmunt(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UK: Polity Press.
- Bourdieu, P. (1990). *The logic of practice*. translated by Richard Ni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今村仁司・港道隆 译(1988). **実践感覚1**. 東京: みすず書房.
- Bourdieu, P. (1986).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Fraser, Nancy(1997).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Routledge.
- Grenfell, Michael (2012). *Pierre Bourdieu: Key Concepts*. Durham: Acumen publishing.
- Kittay, Eva Feder. 岡野八代・牟田和恵 译(2011). **ケアの倫理からはじめる正義論支えあう平等**. 東京: 白澤社.
- Nancy A. Dreyer. & Nancy Fugate Woods & Sherman A. James (1981). ISRO: A Scale to Measure Sex-Role Orientation, *The Journal of Sex Roles*, 7(2), 173-182.
- Patricia Cranton, 入江直子・豊田千代子・三輪建二 译(1999). **おとなの学びを拓く: 自己決定と意識変容をめざして**. 東京: 鳳書房.
- 總務省ホームページ <http://www.stat.go.jp>

· 논문 접수 2015. 11. 02. / 수정본 접수 12. 14. / 게재 승인 12. 22.

· 오민석: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평생교육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아시아에듀허브사업단 연구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 교육, 고령자교육, 다문화교육, 사회운동과 지역공동체 등임.

*Abstract*

**Male Care Activities and Transformation of Gender  
Recognition in Super-aged Society in Japan**

O, Min Suk(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change of male's gender perception and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through care learning activity performed on retired male in Japan from perspective of local education to draw educational direction on care issue on the aged in Korea. The result shows that female education organizations in Japan have practised male care learning to resolve female-biased care issues in local communities through expressing critical view on gender discrimination. In case of "esencia Ota", hands-on activities are practised to resolve lack of perception on gender roles through one's critical self-examination. Care activity in this study links one's perception to formation of the main body; it encourages male's voluntary practise through seeking "inner revolution of perception" and such learning is self-directed and self-determinative learning with personal and social environment change. Eventually, change of male's perception through care learning is not only caused by one's autonomous, independent will but also obtained gradually through transfiguration learning through thorough self-examination against social reality; and the precondition requires communicative learning with others. The conclusion of this suggests the communicative practice courses commitment to learning, cultivation of the educational capacity of local community and hands-on activities promoting participation.

\* Key words: Gender-equal society, cognition transfiguration learning, care learning activity, gender role separation, communicative learning